

뒷걸음질 한국경제 ... '내년이 더 걱정'

하반기 성장률 3%대 머물러 ... 회복 시점도 불투명

글로벌 금융 불안·환율 급등 ... 물가안정 장담 못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하반기에 3%대로 추락한 뒤 앞으로 회복하는 전체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인 수출에 타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물가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 내년 경제 올해보다 나빠진다 = 지난달 30일 국내 예측기관에 따르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4% 중반에 이를 가능성은 있지만 하반기에는 3%대 중후반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문제는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나빠진다는 데 있다.

한은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4.6%에 이르고 내년 하반기에는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었으나 최근 미국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나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경기전망치를 손질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이 연간 4% 안팎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회복 시점 알 수 없다" = 더욱 문제는 내년안으로 경기가 회복을 시작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경기가 내리간 상태에서 앞으로 회복하는 'L자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재준 KDI 연구위원은 "미국의 상황이 더 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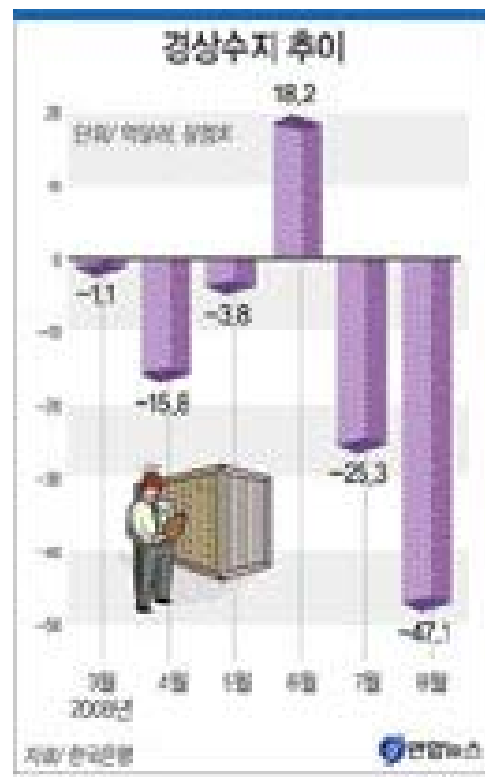
화되지 않고 유가도 현 수준에서 등락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에는 상반기가 경기 저점이 되고 그 이후로 회복국면이 될 것 같다"며 "다만 금융불안이 실물 쪽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신용시장, 원자재 부족 등으로의 수출이 얼마나 버터주느냐가 변수"라고 설명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도 "내년에 경기회복이 시작될지 불투명하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감세를 차질없이 해야 하고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물가안정 장담 못해 = 물가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원·달러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당분간 높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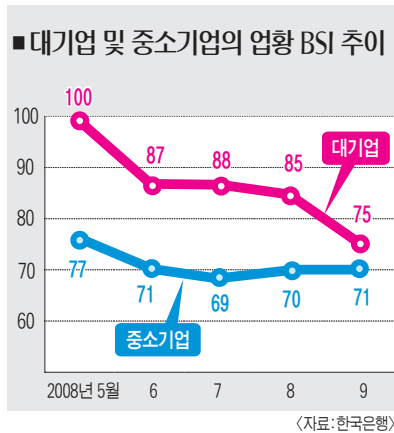
근원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고유가 영향이 미치면서 개인 서비스 요금과 기타 공업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 체감경기도 '퐁퐁'

글로벌 경제 둔화 ... 자금 사정 등 5년만에 최악

韓銀 발표 BSI지수 2P ↓



세계 경기둔화의 여파로 국내 중소기업에 이어 대기업들의 체감경기도 퐁퐁 떨어지고 있다. 대기업들의 체감 경기와 자금 사정은 5년여 만에 최악의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천15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30일 발표한 '9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3으로 전월의 75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6년 8월 7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업황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가 나쁘게 보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음을 뜻하고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특히 대기업의 BSI는 전월보다 10포인트나 떨어진 75를 기록, 2003년 8월 이후 5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BSI는 전월의 70에 이어 9월 71로 1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BSI도 각각 76과 70으로 8월보다 3포인트씩 떨어졌다.

제조업의 자금사정 BSI는 전월 80에서 77로 하락했으며 이중 대기업의 자금사정 BSI는 81로 4포인트 급락했다. 이

두 수치는 모두 2003년 1월 관련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저치다.

매출 BSI는 전월의 101포인트보다 5포인트 떨어진 96을 기록했고 가동률 BSI는 94에서 91로 하락했다.

조사대상 제조업체 가운데 경영여로 사정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을 꼽은 업체는 26.2%로 전월보다 11.9%포인트 줄었으나 환율 요인은 18.7%로 8.7%포인트 증가했다.

제조업의 10월 업황 전망 BSI는 78로 전월의 79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의 9월 업황 BSI는 73으로 1포인트 상승했으나 10월 업황 전망 BSI는 75로 2포인트 하락했다.

"향후 1년간 물가상승률 5% 넘는다"

경제전문가들 전망 ... 환율·공공요금 인상 영향

전문가들은 앞으로 1년간 물가상승률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30일 한국은행이 펴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연구소 연구원 등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3%로 집계됐다.

전문가 대상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작년 하반기 2.7~2.8%에서 올해 상반기 3%대 중반으로 올라섰다가 3분기 때 5%대를 넘어섰다.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도 지난해 하반기 2.8~3.0%에서 올해 상반기 3.5% 안팎으로 올랐으나 3분기 때는 4.3%로 급등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앞으로 1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뒤 답변을 토대로 집계하는 예상 물가상승률이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경로를 분석한 결과 8월 현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를 웃돌 확률은 76%, 4.0%~5.0% 미만일 확률은 24%

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은은 하반기 중 물가가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당분간 높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근원인플레이션도 그동안의 고유가 영향이 미치면서 개인 서비스 요금과 기타 공업제품 가격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가격은 도심 재개발 추진,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택 수요 위축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한은은 경제성장률(GDP)이 하반기 때 4.0% 미만일 확률은 53%이며 4.0~5.0% 미만일 확률은 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출은 호조를 지속하겠지만 베이징 올림픽 이후 글로벌 수요둔화 가능성 등이 앞으로 우리 수출의 하향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3대 모녀 승무원 체험' 킹 교육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아시아나타워 교육훈련원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창립 20주년 '3대 모녀 승무원 체험행사' 참가자들이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교관으로부터 이미지 메이킹 교육을 받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도 이동전화 요금 감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감면 대상자를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실시한다. 기본료와 통화료 35% 감면 혜택을 받았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1만3천원) 면제 및 통화료 50% 감면으로 혜택폭이 커진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명(만6세 제외)까지 사용금액 3만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돼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만1천500원, 차상위계층은 1만500원까

지 요금절감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 감면대상자가 71만명에서 425만명으로 늘어 이동전화 가입자 382만명이 혜택(5천100억원 절감효과)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다.

요금 감면을 위해서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함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가구원의 경우 차상위자의 개인정보 동의를 본인 신분증과 함께 내야한다.

이동전화 신규 가입때 계약서 돌려 받게된다

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서비스에 가입할때 신청자가 제출한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돌려받게 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아진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낼 필요가 없이 이동전화 인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통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 도용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 이같은 내용의 이동전화 가입절차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주식 공매도 금지

총 거래액 대비 5% 초과 종목에 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 공매도가 금지되고 기업들이 하루에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1%에서 1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법안의 부결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식 공매도로 주가로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들의 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을 거쳐 1일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는 20영업일간 공매도 금액이 코스피시장에서 총 거래액 대비 5%(코스닥시장은 3%)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 10영업일간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의 시한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업들이 주가 부양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연말까지 1%에서 10%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당초 2월 계획한 당정 협의의 앞당겨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부터 유가 환급

근로소득자·일용직 대상 3조4천억 규모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안된 3조4천억원 규모의 유가환급금에 대한 지급신청이 내달 근로소득자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하나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총급여액 3천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843만명)와 종합소득금액 2천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443만명),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급여액이 80만~3천600만원인 일용근로자 364만명이다. 지급금액은 최저 6만원에서 최고 24만원이며 총지급액은 3조4천150억원이다.

10월의 신청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소득자는 개별적으로 유가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이 보내는 안내문 및 신청서를 받아 환급계좌를 기재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12월 중 환급금을 받게 된다.

다만 올해 취업하거나 창업해 유가환급금의 지급기준인 지난해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내년 5월에 신청을 받아 지급하게 된다.



리빙 리치 주방가구 전문브랜드 '리첸' 광주 직영 전시장 오픈

(주)리빙리치(대표 정규환)의 주방가구 전문브랜드 '리첸(ritch)'은 서울·부산·인천·강릉에 이어 광주에 대해 직영전시장을 지난 달 30일 오픈했다. (사진)

전시장은 130평 규모로 인테리어와 견제상 집중적인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위치하며, 주방가구 하이리빙 시리즈와 불박이장·현광장·시스템 드레스룸 등을 갖춰 주방관련 원스톱 상담과 구매가 가능하다.

또 '하이리빙' 주방가구는 리첸을 대표하는 제품군으로서, 하부장이 5cm 높게 설계돼 작업자의 허리통증을 줄여주도록 고안됐다.

리빙리치 관계자는 "특히 리첸은 삼성전자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빌트인 주방가구와 시스템 하우젠을 선보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62)515-2272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지비씨 주식회사	소프웨어 및 영업지원 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0/01	062-350-6556
㈜형성엔지니어링	[정규제]토목 설계 신입/경력 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5	061-375-8005
㈜동방종합전기	[소방]기술지원 및 도면검토 정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5	062-382-2114
인원산업(주)	관리직(남) 및 경리에 경력사원	고졸/경력1년	2200~2400	10/06	062-655-4840
㈜신영하이테크	PRESS 금형 부품 생산직 인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6	062-949-8800
가동건설(주)	건축기사/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신입 여직원	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06	062-364-0900
ING생명(본세)	[하반기]남.여성담임/저축성상품	고졸/경력무관	3000~3200	10/06	02-3452-2612
(재)조선경제연구소	연구원(남)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7	062-371-7340
가보농산(주)	발품 및 견장식품 영업 및 매장관리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08	061-334-1161
햇봄	물류재고관리 및 입출고관리, 주문서작성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0/08	062-375-5998
광주인타임스(주)	영업, 납품, 출하관리 경력직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0/08	062-944-0111
일진통신기술(주)	총무, 회계, 경리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08	062-654-0222
한국재가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및 내근직사무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0	062-232-700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